

September 30, 2006


 UPKOREA.net 사회

## 박근혜의 '외교안보' vs 이명박의 '경제 재건'

[업코리아 2006-09-30 15:41]

각각 이슈 선점 전략에 나서...고건 '샌드위치' 되려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대권카드로 외교.안보 선점에 나섰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륙운하 건설'을 사실상의 대권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9일 오전 1시 독일 아데나워 재단 초청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쏟아냈다.

박 전 대표는 "튼튼한 안보는 경제 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다"면서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의 확고한 군사적 동맹과 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경제력과 강력한 전쟁 억지력, 동독의 변화를 유도한 원칙있는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낸 독일외교의 성공이 바로 독일통일의 3가지 조건이었다"며 "한국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도 이 3가지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통일을 향한 자신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동독과의 교류시, 지원을 하는 만큼 '분단고통의 완화'라는 댓가를 반드시 관철시켰다"며 "한국의 대북 지원도 이렇게 호혜적 상호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퍼주기'라고 비난 받는 현 대북지원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등을 포기하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고와 EU 그리고 IBRD,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고 등 동북아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라는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도 제안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외교.안보 프로젝트'는 이명박 전 시장이 '국운 융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내륙운하 건설'과 여러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명박 전 시장이 내세운 내륙운하 건설은 직접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관련돼 있다. 한반도를 가로 지르는 내륙운하는 그 건설과정에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 완성이 될 경우 물류혁신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대역사라고 이 전 시장측은 밝히고 있다.

September 30, 2006


 세상을 보는 힘  
UPKOREA.net 사회

반면 박 전 대표의 '외교.안보 프로젝트'는 국내 경제효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 전 시장이 내륙운하로 한반도 경제에 일획을 긋는다면 박 전 대표는 미래를 위해 외교.안보를 통한 튼튼한 그물을 짜겠다는 것으로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이 전 시장의 내륙운하 건설은 그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이라는 '신화'를 달성한 그에게 내륙운하는 그의 독점 공약이 될 수 있다. 개발의 선두주자인 이 전 시장만이 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카드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의 독무대이기에 또다시 '고독한 불도저'가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달리 박 전 대표의 외교.안보 프로젝트는 독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 성격이 노무현 정권의 기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도전장이기에 치열한 투쟁이 요구된다. 또 반대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공격도 불러들이게 된다. 대신 많은 지원군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 정권에 대해 불만이 팽배한 보수.우파 세력들이 강력한 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 대권후보 2톱이 '외교.안보 vs 경제살리기'로 구분된 형국이다. 그렇다면 외교.안보를 내세운 후보와 경제를 내세운 후보 가운데 누가 더 유리할까? 답은 '막상막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교.안보를 내세운 부시 현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문제를 강조한 케리 전 민주당 후보를 이겼지만 경제를 강조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비중을 둔 부시 전 대통령을 이기기도 했다. 결국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는 가변적이다.

한편 대권후보 빅3중 한명인 고건 전 총리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나름의 궁극한 대권 공약성 카드를 내놓은 데 반해 고 전 총리는 사실상 공약이라 할 만한 특별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범여권통합설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다. 외교.안보와 경제라는 두가지 큰 축을 선점 당한 고 전 총리가 이 둘과 막먹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윤종희 기자

September 30, 2006

UPKOREA.net 사회  
세상을 보는 힘

## Übersetzung

**Park Geun-hyes ‚Auslands- und Sicherheitspolitik‘ vs. Lee Myung-baks ‚Wirtschaftsaufschwung‘**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Guen-hye scheint im Bereich de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em ehemaligen Seouler Bürgermeister Lee Myung-bak einen Schritt voraus. Dies ließ sich während Parks Rede bei der Konrad-Adenauer-Stiftung erkennen.

Lee Myung-baks Aushängeschild im Präsidentschaftswahlkampf sind in erster Linie dessen Inlandskanalpläne. Sein politisches Programm richtet sich hauptsächlich auf den Wirtschaftsaufschwung innerhalb Koreas. Die Pläne von Park hingegen fokussieren di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sche Zukunft.